조지아관광청 with 문의 1800-1454
코카서스 3국 여름여행
7/6, 7/13, 8/10, 8/24 출발 GTG Korea 서울사무소

# “루저를 위하여” 루저에 의한 루저의 도전기

**영화 ‘튼튼이의 모험’**

## 고봉수 사단



30대 나이에도 ‘뻔뻔하게’ 고등학생을 연기해 어이없는 웃음을 주는 영화 ‘튼튼이의 모험’의 주연 백승환, 김충길, 신민재(뒷줄 왼쪽부터)와 연출자 고봉수 감독(앞).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나타났다.

200여 편의 코믹 단편영화를 만든 감독, 10년 넘도록 묵묵히 무명배우의 길을 걸은 세 명의 연기자가 ‘튼튼이의 모험’이라는 다소 유치한 제목의 영화를 들고 세상에 나왔다. 아직 이들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끝이 안보여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감독과 배우들이 내뿜는 극강의 매력, 그 뒤에 드러나는 내공을 접하는 순간, 이들의 앞날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1일 개봉하는 ‘튼튼이의 모험’은 사라질 위기의 시골 고등학교 레슬링부 이야기다. 실제 전남 함평중학교 실화를 옮긴 영화는 세상의 중심에 서지 못한 세 명의 고등학생이 레슬링을 통해 꿈을 찾아가는 내용. 스토리만 보면 대단한 감동 드라마로 보이지만, 사실 ‘루저가 만든 루저의 도전기’라는 설명이 더 적합하다.

연출을 맡은 고봉수(42) 감독과 주연 신민재(35) 백승환(32) 김충길(30)은, 이제는 ‘고봉수 사단’으로 불린다. 2014년 인연을 맺은 뒤 영화계에서 전무후무하게 4편의 영화를 함께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단편 ‘쥐포’부터 2017년 장편 ‘델타보이즈’와 이번 ‘튼튼이의 모험’을 넘어 아직 공개하지 않은 흑백영화 ‘다영씨’도 남아있다. 나이도, 이력도 다르고 성격은 물론 외모의 분위기까지 제각각인 이들이 ‘고봉수 사단’으로 뭉쳐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안 해본 일 없는 늦깎이 영화감독과**
**잃을 거 없는 무명 배우들 의기투합**

**30대 배우들 뻔뻔한 학생연기 폭소**
**이거 찍다 저거 찍다 애드리브 만발**

**제작비 2000만원…극장 개봉 대박**
**차기작도 코미디…루저 시리즈 쭉~**



사라질 위기에 놓인 시골 고등학교 레슬링부 이야기를 담은 영화 ‘튼튼이의 모험’의 한 장면. 사진제공 | CGV아트하우스

### ● “늘 하던 대로, 즉흥적으로!”

사단의 중심에 있는 고봉수 감독은 여러모로 흥미를 자극하는 사람이다. “공사장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28살에 정말 영화가 찍고 싶어서 3개월짜리 영화아카데미에 등록했다”는 감독은 “카메라 작동과 편집을 배우고 바로 촬영현장으로 나갔다”고 했다. 습작을 포함해 14년간 만든 단편영화가 약 200편, 한 편도 빠짐없이 모두 코미디다.

안 해본 일도 없다. 보험왕을 꿈꾸며 보험회사를 다녔고, 미국으로 건너가 7년간 지낼 때는 한인 라디오 방송에서 드라마를 만들고, DJ로도 일했다. 촬영감독으로 남의 영화도 도왔다. 감독은 “평범하게 회사 다닐 때도 주말마다 직원들 모아서 영화를 찍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고 돌이켰다.

신민재, 백승환, 김충길은 그런 고봉수 감독의 재능이 더 꽃피도록 만든 주역이다. 이들 배우는 2005년 무렵 연기 입시학원에서 처음 만났다. 저마다 좌절하고 실패를 맛보던 때였다.

“두 번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군대 다녀와 만났다. 배우로 나아가는 데 용기를 주는 관계다.”(신민재)

“처음 같이 연기를 배우고 고생한 친구들은 다 흩어지고 우리 셋만 남았다. 같이 영화사에 프로필 돌리러 다니는, 내 마음속 ‘베스트 브로’이다.”(백승환)

“우리가 계속 연기하는 걸 주변에선 탐탁치 않아했다. 나이도 먹었지만 관둬야 한다는 생각은 안했다. 한 게 없는데 왜 관둬야하나.”(김충길)

‘고봉수 사단’이 영화계에서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때는 ‘델타보이즈’부터다. 제작비 250만원으로 만든 이 영화는 남성 사중창 대회 출전을 위해 급조된 4명의 친구 이야기다. 돈도, 열정도 없는 ‘루저’ 4명의 대책 없는 도전기가 여러 영화제에서 주목받았다. 이번 ‘튼튼이의 모험’은 그로부터 이어지는 ‘루저 시리즈’로 봐도 무방하다. 감독과 배우들이 투자자로 참여해 제작비 2000만원을 모아 찍었다. 개봉까지 하리라곤 기대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우리 모습을 보면 ‘쟤네 지금 뭐하는 짓이야’ 싶을 거다. 하하! 이거 찍다가 갑자기 저거 해보자, 전부 즉흥적이고 애드리브다. 오직 촬영을 잘 넘겨야 한다는 절박함? 그걸로 버텼다. 하하!”(고봉수)

### ● “결국 자신의 이야기”

‘튼튼이의 모험’의 주인공은 저마다 결핍을 가진 인물들이다. 작지만 눈앞에 보이는 희망은 레슬링뿐. 그렇다고 실력이 출중하지도 않다. 다만 레슬링만이 가족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길이다. 배우들은 “결국 우리의 이야기”라고 했다. “배우로서 크게 응원 받으며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는 신민재는 “이 길이 맞는지 모른 채 걷다보니 여기까지 왔다. 그런 우리 이야기가 영화에 나열된 듯하다”고 했다. 김충길은 때때로 주변에서 “바보 같다”는 말을 듣는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백승환도 마찬가지. “뒤돌아보면 성과를 낸 삶이 아닌, 대학도 못갈 정도로 실패가 더 많은 삶이지만 영화로 담아낼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배우들의 말을 듣다보면 조금 뭉클하지만, 영화 자체로 보면 그저 황당하게 웃길 뿐이다. 배우가 전부 30대인데도 그 흔한 분장도 없이 ‘뻔뻔하게’ 고등학생을 연기하는 모습이 어이없이 웃긴다. 하물며 레슬링 선수인데 다들 ‘아재 몸’을 자랑한다.

영화 조연은 대부분 함평 촬영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캐스팅한 동네 주민이다. 이들은 등장만으로도 최강의 웃음을 만든다. 레슬링부 코치를 맡은 고성완 씨도 한몫 제대로다. 감독의 삼촌인 고 씨는 서울시내 버스기사라는 실제 직업이 무색할 정도로 실감나는 연기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감독은 “삼촌 캐스팅은 어렵지 않았지만, 삼촌이 숙모를 설득하는 일은 아주 어려웠다”고 귀띔했다.

고봉수 감독은 앞으로도 코미디 영화만 만들 계획이다. 이미 차기작 구상도 마쳤다. 독립영화에서 돋보이는 결과물을 낸 그를 눈여겨본 제작사의 제안으로 상업영화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곧 촬영을 시작한다. 제작 규모도 상당할 전망이다. 이번에도 루저의 이야기다. 다만 괴력을 가진 루저들이 주인공이다. 새로 시작하는 상업영화에도 ‘고봉수 사단’은 함께한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 연예뉴스 HOT 5

### ‘박보검 생일 기념’ 팬들 기부 행렬

배우 박보검의 생일을 맞아 그의 팬들이 다양한 곳에 기부했다. 17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따르면 박보검의 팬클럽 ‘보검복지부’, ‘박보검과 함께 걷는 사람들’은 박보검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각각 201만8616원, 93만616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또 다른 팬클럽 ‘6월의 꽃’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정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박보검 팬들은 승일희망재단에도 616만원을 기부했다. 가수 션은 16일 인스타그램에 “박보검 씨 6월16일 생일을 기념해 팬클럽에서 616만 원을 아이스버킷챌린지 루게릭요양병원건립 기금으로 승일희망재단에 기부해주셨다”고 알렸다.

### 방탄소년단 기부 모금액 11억 돌파

그룹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함께 진행하는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 모금액이 5월31일 기준으로 11억 5460만원을 돌파했다. ‘러브 마이셀프’는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는 캠페인으로, 모금액은 유니세프가 전 세계 아동·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해 펼치는 캠페인에 2년간 지원된다. 방탄소년단과 빅히트가 지난해 11월 5억원을 기부하며 시작한 이래 전 세계 팬들의 참여 속에 6개월 만에 11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가 적극 동참한 결과다. 태국 아미는 13일 방탄소년단 데뷔 5주년을 기념하는 헌혈 캠페인을 진행해 20만cc를 모았다.

### 블랙핑크, 韓 걸그룹 최단 4000만뷰

블랙핑크가 컴백과 동시에 기록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오후 6시 공개된 첫 미니앨범 ‘스퀘어 업’ 타이틀곡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는 공개된 지 27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4000만 회를 돌파, 케이팝 걸그룹 사상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다. 앞서 블랙핑크는 1천만 조회수(6시간), 2000만 조회수(13시간), 3000만 조회수(23시간) 기록을 모두 갈아 치운 바 있다. 미국 빌보드 기준 ‘뮤직비디오 공개 24시간 조회수 톱10’ 순위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전 세계 걸그룹 최고 순위이자 전 세계 아티스트 통틀어 역대 4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뚜두뚜두’는 공개 이후 각종 실시간 일간차트 1위를 휩쓸고 있다.

### 김부선 “내 일을 정치에 이용 말라”

배우 김부선이 자신을 위한 모금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자 하 의원은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며 지원할 뜻을 거뒀다. 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위선, 협박과 싸우는 김부선씨를 위한 모금운동에 동참하겠다.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글과 함께 김부선의 은행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이에 김부선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 말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썼고, 이후 하 의원은 17일 “더 이상 직접 개입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스캔들 의혹에 휩싸여 있다.

### 김재중, 日 인기 음악프로그램 출연

김재중이 일본 아사히TV 인기 음악프로그램 ‘뮤직스테이션’에 8년 반 만에 출연했다. ‘뮤직스테이션’은 매주 금요일 저녁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음악방송으로, 1986년부터 시작된 장수 프로그램. 15일 생방송에 출연한 김재중은 화려한 의상과 함께 눈에 띄는 외모로 현지 시청자들의 눈길을 모았다. MC 타모리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뽐낸 김재중은 일본 솔로 데뷔곡 ‘사인’을 애절한 퍼포먼스와 함께 열창했다. 방송 직후 김재중은 일본 트위터의 유명인 일간 종합랭킹 및 실시간 랭킹 1위, TV방송 화제의 키워드 1위 등을 차지하는 등 현지 온라인은 그의 무대에 대한 이야기로 들썩였다.